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기 학대경험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최 미 정

아동기 학대경험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최 미 정

인 준 서

최미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를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도식의 내용을 탐색하였다.

수도권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95부가 회수 되어 277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로는 초기 부적응 도식, 아동기 외상 질문지, BDI, BAI를 사용하였다.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연구나, 학대와 도식에 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많이 있어 왔지만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을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개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 하는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식의 내용은 두 개의 공통요인이 있었고 각각의 개별적인 요인을 갖는 우울 및 불안의 삼요인 이론을 지지 하였다. 아동기 학대와 우울은 정서박탈, 유기, 위협취약성, 절대기준의 도식 내용에 의해 매개된다. 또한, 아동기 학대와 불안은 유기, 위협 취약성, 비분리 도식의 내용에 의해 매개된다. 즉, 유기와 위협취약이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울에 특수하게 영향력이 있는 도식으로 정서 박탈, 절대 기준이 있었고, 불안에 특수하게 영향력이 있는 도식으로는 비분리가 있었다.

Beck(Beck, 1967, 1987; Kovacs & Beck, 1978)은 우울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

과 세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Beck은 아동기 학대가 자신과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을 초래하는데, 이 도식이 활성화 되었을 때,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하였다(Kayson et al., 2005). 이러한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아동기 학대 점수가 높을 수록 초기 부적응 도식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발달할수록 우울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불안은 위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위험, 불예측성, 불확실성과 관련된 사고 내용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일어 날 것이라고 믿는 도식인 위험 취약성이 아동기 학대와 불안을 매개하여 이러한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분리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 Vaughn, Gove, Egeland(1980)는 분리시기별로 애착에 미치는 정도를 연구했는데, 1세 이후에 분리된 아동이 1세 이전에 분리된 아동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아동에게 애착을 느끼는 대상과의 분리는 정서적 방임과 관련이 있고 이는 유기와 비분리 도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은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할 때 생길 수 있다(김영교, 1995). 따라서 유기 도식이 불안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초기 부적응 도식, 우울, 불안, 아동기 학대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우울 및 불안 모형 6

II. 이론적 배경

1. 아동기 학대 경험 8
2. 아동기 학대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10
3. 아동기 학대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14
4. 초기부적응 도식의 인지매개 가설 18
 -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개념 18
 - 2) 아동기 학대, 부적응도식, 우울 및 불안 20

III.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24
2. 측정 도구
 - 1) 우울검사(BDI) 24
 - 2) 불안 검사(BAI) 25

3) 초기도식질문지(YSQ-Short Form)	25
4) 외상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	26
3. 자료분석	27

IV. 결과

1. 주요 변인상관 계수	29
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우울 및 불안 회귀분석	32
3. 측정모델 검증	34
4. 아동기 학대와 우울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38
5. 아동기 학대와 불안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42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논의	45
2. 제언	4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요인	19
<표 2> 주요변인 상관계수	30
<표 3> 초기 부적응 도식과 우울 회기 분석	32
<표 4> 초기 부적응 도식과 우울 요인별 회귀결과	32
<표 5>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불안 회기 분석	33
<표 6>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불안 요인별 회귀결과	33
<표 7> 우울 측정모델 적합도	35
<표 8> 우울 측정 모델 요인 부하량	35
<표 9> 불안 측정 모델 적합도	36
<표10> 불안 측정 모델 요인 부하량	37
<표11> 우울을 설명하기 위한 3개의 모형 적합도	40
<표12> 불안을 설명하기 위한 3개의 모형 적합도	4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1	6
<그림 2> 경쟁 모형1.1	6
<그림 3> 경쟁 모형1.2	6
<그림 4> 연구 모형2	7
<그림 5> 경쟁모형2.1	7
<그림 6> 경쟁모형2.2	7
<그림 7>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한 우울 측정 모델 검증	34
<그림 8> 초기 부적응 도식을 매개로한 불안 측정 모델 검증	36
<그림 9> 연구모형1	38
<그림 10> 경쟁모형1.1	39
<그림 11> 경쟁모형1.2	40
<그림 12> 경쟁모형1.1	42
<그림 13> 경쟁모형1.1	43
<그림 14> 경쟁모형1.1	4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 학대는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이후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인격체로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행동적 문제를 겪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학대받은 아이들은 우울, 불안, 심한 위축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Allen & Tarnowski, 1989; Bolger & Patterson, 2001; Toth, Manly, & Cichetti, 1992, Gibb et al., 2001)와 공격성, 비행, 품행장애 등 외현화 문제(Dodge, Pettit, Bates, & Valente, 1995), PTSD(Rodriguez, Ryan, Rowan, & Foy, 1996; Schaaf & McCanne, 1998), 여러 성격장애 (Johnson, Cohen, Brown, Smailes, & Bernstein, 1999; Miller & Lisk, 1999), 섭식장애 (Kent & Waller, 2000), 낮은 학업성취 (Briere & Runtz, 1988), 낮은 자기존중감 및 부정적인 자아개념 (김아다미, 2001; 김양미, 2000; Browne & Finkelhor, 1986), 자살생각 및 자살 행동(Briere & Runtz, 1988; Cavaiola & Schiff, 1988)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학대경험은 아동기 거의 모든 정서 및 발달 장애의 원인 혹은 선행요인이 된다(Kendall-Tackett et al., 1993). 아동기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들은 학대의 그 심각성과 정도에 따라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도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하며(Giant & Vartanian, 2003; Lopez & Heffer, 1998; Silverman, Reinherz, & Giaconia, 1996), 학대받은 경험은 자신의 자녀에게 대물림되기도 한다(Coohey & Braun, 1997).

아동학대로 인한 문제가 이렇듯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훈

육이나 교육의 수단으로서 아동을 체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권지영, 안동현, 이정숙, 1992). 많은 아이들이 학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즉 아동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을 신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오지 못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일차적인 보호소가 되어야 할 가정 내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03),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특수성을 띄게 되므로 학대의 사실이 은폐되거나 무시되기 쉬운 현실이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이 어릴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2007년 보건 복지부에 신고 접수된 현황을 보면, 아동기 학대는 신고전화가 9,478건에 이른다. 아동학대의 사례 유형별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구분으로는 신체적 학대는 손발로 때리거나 조름 또는 비트는 것이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는 소리 지르거나 무시하는 것 또는 모욕이 다음으로 많았다. 성 학대는 성관계 장면 노출과 성 놀이, 성추행등의 순이었다. 방임은 물리적 방임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았다. 유기는 길이나 시설에 유기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의 발생 빈도는 2007년 5,581건중 1,644건이 거의 매일 있었고, 2~3일도 600건에 이르며, 수시로 학대당하는 아동도 1,171에 이른다. 그 중 일회성은 375회로 많은 아동이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신고 되는 아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되며, 2007년 그 수가 957건에 이른다(보건복지부, 2008). 이러한 통계치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한 것과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반복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이 그 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대의 심각성 때문에 아동기 학대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있어왔다. 그 중 하나가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연구이다. 우울과 불안은 생활 속에서 가장 흔히 경험 될 뿐만 아니라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도가 현저하기 때문에 임상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담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정서적 문제이다. 따라서 우울과 불안은 심리적 부적응 또는 정신병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 온 연구 주제이기도하다(권석만, 1996). 그러나 아동기 학대와 심리적인 문제를 매개하는 기제나 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기 학대가 어떠한 심리내적 과정을 거쳐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그 발생과정과 경로를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하겠다.

아동기 학대가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발생과정에서 인지 이론적 맥락에서 부적응 도식의 매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인지 요인인 부적응 도식이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을 매개한다는 것이다. 인지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도식이므로(Beck & Freeman,1990), 부적응을 유발하는 병인적 도식(pathogenic schema)의 유형과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인지치료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지치료 이론의 틀 내에서 부적응 도식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다. 예를 들어, Beck (1967), Segal(1998)등과 같은 인지치료 이론가들은 개인의 자기-개념의 중추를 구성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신 구조로서의 도식을 상정하면서, 이러한 도식으로 인해 자기와 타인 및 외적 현실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이 어떻게 심리적 부적응으로 귀결되는지를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이론적 노력들 중에서 최근 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Young(1990)이 제안한 ‘도식-중심치료(schema-focused therapy)’ 이론이다(조

성호, 2002).

도식중심치료 이론에서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아동기의 경험에 기반한 도식을, 초기 부적응 도식 (early maladaptive schema)이라고 부른다(Young, 1990). Young(1990)에 의해 개발된 도식-중심치료(schema-focused therapy)는 성격장애나 만성적인 심리장애의 성격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는 표준적 인지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진전이 없는 내담자들의 인지 양상이나 주제를 바탕으로 목록을 작성한 후 보다 정교화한 것이며, 내담자의 심리적 핵심주제로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라 명명되었다. 초기 도식은 자기와 환경을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기 위한 참조의 틀로서 기능하며, 아동기 시절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부모와 같이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적응 도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같이 생의 초기에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은 개인의 삶과 특히 정신건강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학대가 이후 성인기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도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초기부적응도식이 아동기 학대 경험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울이나 불안을 일으키는 부적응 도식을 찾아 그것에 개입하는 방식의 인지 치료적 접근이 유용함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이후 성인기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을 것이다.

가설2.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불안 성향이 높을 것이다.

가설3. 아동기 학대경험과 우울과의 관계를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4. 아동기 학대경험과 불안과의 관계를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개할 것이다.

3. 우울 및 불안 모형

우울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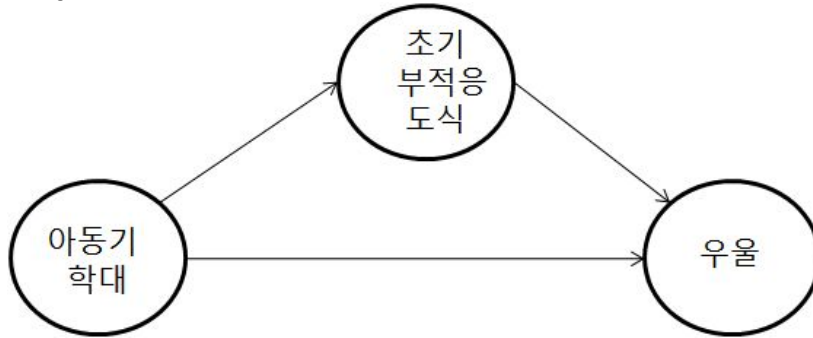


그림1.연구모형



그림2.경쟁 모형1.1



그림3.경쟁모형1.2

불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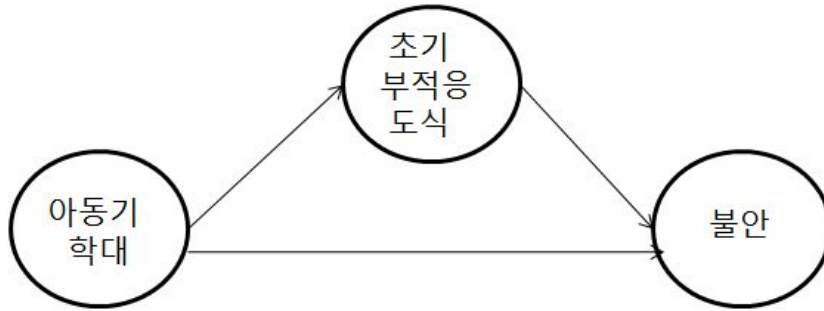


그림4.연구 모형2



그림5.연구 모형2.1



그림6.연구 모형2.2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기 학대경험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를 말한다(DSM-VI, 1994).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간직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외상을 겪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동기 외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 없이 많다. 그 중 아동 학대는 모든 문화권이나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Ryan, Kilmer, Cauce, Watanabe, & Hoyt, 2000)이나,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시대 혹은 한 문화권에서 학대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는 학대로 간주될 수도 있다(Gelles, 1987). 따라서 그 기준이 다양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없고, 학대의 하위 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보통 아동 학대는 협의적 정의와 광의적 정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협의적 정의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상처에만 한정짓는다. 광의적 정의는 신체적 학대 이외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모두를 포괄하여 정의한다(김현수, 1997). 본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를 협의적 정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정서적 학대 등을 포함 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아동학대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성 학대는 학대를 광의적으로 정의했을 경우에도, 특수한 유형이기에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각 유형별 아동학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입힌 신체적 손상이나, 의료적 행위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보건 복지부, 2003; Kempe & Helfer, 1987). 부모나 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는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것, 물어뜯거나, 목을 조르거나 던지는 것,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공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없는 실정으로 (Kent & Waller, 2000), 정서적 학대는 이로 인한 해로운 결과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의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다(O'Hagan, 1995). 그러나 대체로 정서적 학대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한 반응 또는 가족 내에서의 스트레스와 욕구불만 등에서 초래되는 것으로(원성희, 1997), 습관적, 반복적으로 아동을 원망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어, 물리적 위협을 조장하는 언어, 굴욕감/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경멸적인 언어,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는 언어, 극단적인 적대감을 표현하는 언어 등을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김양미, 2000).

세 번째, 신체적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아동이 즉각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차후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 을 포함하고 있다.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기간 위협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형태의 물리적 방임, 학교에 무단으

로 결석을 하여도 고의적으로 이를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의 교육적 방임,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의료적 방임 등이 이에 포함 된다(이영미,2005).

마지막으로, 정서적 방임이란 아동이 가족구성원 안에서 충분한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 하고,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족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비교적 정의 내리기가 쉽고 외현적으로 뚜렷한 증후를 보이는 신체적 학대의 행동적/심리적/신체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지만, 개념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모호하고 양적인 측정이 어려운 정서적 학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Kaplan, Pelcovitz & Labruna, 1999; Spertus, 2003).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이 비신체적인 공격과 심리적 학대를 포함하는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박탈이나 정서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정서적 방임 역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Spertus 등,2003).

2.아동기 학대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우울증은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정신장애인 동시에 정신과 영역에서 감기에 비유될 정도로 매우 흔한 장애이기도 하다. 또한 우울증은 개인의 능력과 의욕을 저하시켜 현실적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 조사자료 에 따르면, 우울들은 전 세계적으로 직업적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심리장애이기도 하다(Lopez & Murraray, 1998).

주요우울 장애의 경우, 평생 유병율이 여자는 10~25%이며 남자는 5~12%로

보고되고 있다. 기분부전장애의 경우는 평생 유병율이 약 6%로 알려져 있다. 역학연구마다 사용한 방법에 따라 유병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우울증은 정신장애 중에서 가장 유병율이 높은 장애이다. 경미한 우울증을 포함하여 우울증의 유병율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 시점에서 5~10%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일생동안 20~25%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한다(Kessler et al. 1994).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흔한 장애이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에 있어서 여성들이 더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주요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율이 남자의 경우 5~12%인데 반해 여자에게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Bland, 1997; Holen-Hoeksema, 1987). 특히 이러한 남녀 차이는 단극성 우울증에서 흔히 나타난다.

우울증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을 재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Simons, Murphy, Levine, & Wetzel, 1985). 우울증을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우울증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 한번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 중에 약 50~60%는 두 번째 우울증을 경험한다. 두 번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세 번째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은 70%, 세 번째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네 번째 우울증을 보고할 가능성은 90%에 이른다. 가족 중에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5~3배 정도 발병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울의 발병률은 인종, 교육, 수입, 결혼 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이후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Kaplan 등, 1999; Spertus 등; 이유경, 2006), 섭식 장애(Hund & Espelage, 2006), 자살

(Briere & Runtz, 1998), 사회적 능력의 손상 (Bolger 등, 1998)과 함께 학교 부적응(은희정, 2002), 대인관계 문제(박미란, 2003; Straus, 1991), 성격장애 (Johson 등, 2001)등을 초래한다. 이처럼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행동적/정서적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많은 연구들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성인기 우울증의 관계를 연구하였지만, 아동기 학대경험이 우울에 이르게 하는 잠재적인 기제를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Beck등의 우울증 인지이론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로 인해 발달한 기제가 성인기 우울증의 도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Kayson et al., 2005). 또한 도식이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아동기 동안에 발생하는 주요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된다고 가정하였다(Beck, 1967, 1987; Kovacs & Beck, 1978). 따라서 만약 초기 상호작용이 부정적이었다면, 도식이 긍정적인 사건 보다 부정적인 사건 위주로 발달 될 것이며, 발생하는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 하도록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토대로 Beck (Beck, 1967, 1987; Kovacs & Beck, 1978)은 우울한 사함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기 학대가 자신과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도식을 초래하는데, 이 도식이 활성화 되었을 때, 우울증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Kyson et al., 2005).

아동기의 다양한 학대 경험이 성인기에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지양식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기의 성적 학대는 성인기의 부정적인 귀인양식(Gold, 1986)과 관련이 있으며,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는 성인기의 부정적인 귀인양식과 대처양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Kuyken & Brewin, 1999). 그리고 아동기의 심리적 학대는 성인기의

정서표현의 억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지 양식과 연관이 있어 우울증의 발병에 잠재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동기 성적학대와 현재 보이는 우울증상간의 관계는 자신에 대한 부적응적 인지양식에 의해 매개되었으며, 아동기 성적, 신체적 학대와 성인기 우울증상간의 관계는 타인에 대한 부적응인지 양식에 의해 매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Rose와 Abramson(1992)은 인지이론의 체계 내에서 우울증의 인지양식의 근원을 기술하려고 시도 하였다. 그들은 아동기 학대경험을 포함하여 아동기에 부정적인 발달적 사건과 같은 사건이 부정적 인지양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인지양식이 특질처럼 정교화 된다고 하였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인지적 위험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신체적, 성적 학대가 정서적 학대보다는 부정적 인지 양식의 발달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는 다른 아동기의 학대 유형보다 부정적 인지양식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서적 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지양식에 영향을 준다고 추론 할 수 있다(Maciejewski & Mazure, 2006에서 재인용).

Mendelson 등(2002)은 정신과적 외래 환자 77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인지적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부정적 인지양식인 사회적 의존성(sociotropy)이 증가하며, 아동기 학대 경험과 자율성(autonomy) 부적으로 상관이 된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는 인지적 위험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3. 아동기 학대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일반화된 불안 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이하 GAD)는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 정신 장애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GAD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1년 유병률은 3%, 평생 유병률은 5%였다(American Psychiatric 등, 2004). 1년 유병률은 1.04%(남자 .65, 여자 1.42%)로 특정 공포증 다음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GAD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3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II: DSM-III)에 처음 소개된 장애로서 보고되는 증상들이 다른 불안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잔여 진단이었다 (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APA, 1980). 그러나 수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DSM-III-R(APA, 1987)에서는 걱정이 주된 특징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증상들이 명시되었다(Brown, Barlow & Liebowitz, 1994; Marten, Brown, Barlow, Borkovec, Shear, & Lydiard, 1993). DSM-IV (APA, 1994)에 와서는 걱정을 좀 더 명확히 명시하여 지속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강조하게 되었고, 다른 불안장애에서 관찰되지만 GAD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자율신경계 각성 증상에 대한 진단기준이 DSM-IV에서 제거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Marten, Brown, Barlow, Borkovec, Shear, & Lydiard, 1993). DSM-IV GAD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다양한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최소한 한 번에 며칠 이상 발생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은 이러한 걱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셋째, 불안과 걱정은 (1) 긴장이 고조되거나 가장자리에 선

느낌, (2) 쉽게 피로해짐. (3) 주의 집중 곤란 혹은 머릿속이 텅 빈, (4) 신경과민, (5) 근육긴장, (6) 수면장애 중 3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다. 넷째, 불안과 걱정의 초점이 다른 장애의 특징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다섯째, 불안, 걱정 또는 신체 증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여섯째, 장애는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기분장애, 정신증적 장애, 광범위성 발달장애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 않는다.

GAD를 진단하는데 있어 핵심 증상은 걱정으로, 이는 일상생활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면서도 다양한 정신병리에서도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유성진, 권석만, 2000). 따라서 연구자들은 정상적인 걱정과 병리적인 걱정을 구분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했는데(Davey, 1993, 1994a). 정상적인 걱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의식 속에 침투해 들어오거나 생활상에 촉발자극에 의해 시작되지만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종결되므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돕는 적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병리적인 걱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에 침투해 들어오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며 부정적인 침투사고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또한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과도한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부수적 증상을 수반하여 정서적 불편감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적응기능을 현저히 저하시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Borkovec, 1994; Borkovec, Robinso, Pruzinsky, & Depree, 1983; Davey, 1994a, 1994b) GAD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증상들을 경험하게 한다.

최근 들어 정신과 병원을 찾는 사람 중에 아동의 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심각한 정서 상태가 우울과 불안으로 나타났다.

Styron과 Janoff-Bulman(1997)은 아동기 학대에 노출 되었을 경우, 불안정한 아동기를 보내며 성인기에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Sternberg(1993)는 가정에서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불안과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장기의 학대와 방임 및 부부 폭력 경험이 높을수록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 수준 및 정신적 불건강이 심각하게 높았다(유수진, 2003; 이유경, 2005에서 재인용). 또한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 경험이 높을수록 심리적증상과 대인관계 문제 수준 및 정신적 불건강이 심각하게 높았다(유수진, 2003; 이유경, 2005). 이것은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을 목격한 대학생들이 더 많은 신체 증상을 보였고, 더 우울 하고 충동적이라는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와 일치한다(안귀여루, 2001). 대학생의 심리적 외상 경험은 우울, 불안, 경계선적 경향성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있어 문제해결을 피하고 소망을 추구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상금, 2003). 아동기에 성피해를 입은 일반여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피해자들이 비피해자에 비해서 더 많은 정서적 불안을 보였으며, 대인관계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대인신뢰감이 더 낮았고, 더 많은 임상증상을 보였다. 특히, 아동기 성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피해자들은 성인기에 성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 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김정규, 2000; 송진경, 2002에서 재인용).

성적학대 경험은 신체화와 공포불안에 대해서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 즉, 대학생 성 피해자들이 총 정신건강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다(기채영, 2007).

외상경험이 사회 불안에 미치는 연구들을 보면, 사회불안장애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외상경험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44%가 사회불안 장애와 관련된 외상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Sternbegrer, Tuumer, Beidel, & Calboun, 1995).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은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두 측면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에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지& 김광웅, 2008).

4. 초기 부적응도식의 인지매개 가설

1) 초기 부적응 도식의 개념

초기 부적응도식은 Young(1990)에 의해서 처음 제안된 개념이다. 이는 인지 치료자였던 그가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진전이 없는 환자들의 패턴 혹은 주제들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그 후 보다 정교화한 것으로, 생애초기에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반복되는 자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을 유형화 한 것이다. Young은 생애초기의 핵심적인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초기 부적응도식이 발생한다고 본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이 도식들의 주된 기원은 개인의 기질과 유기, 학대, 무시, 거절 등의 혐오적인 아동기 경험에서 비롯되고, 광범위하고 만연된 형태로 생애 전반에 걸쳐 정교화 된다. Young등 (2003)은 핵심정서욕구가 좌절됨으로써 혐오적인 아동기 경험이 유발되는 전형적인 가족기원(부모특성 및 가족환경)의 5가지 유형이 있고, 이에 따라 초기 부적응도식들이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정의는 자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이며, 생애 초기에 시작되어 일생동안 반복되어 부적응적인 양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초기 부적응 도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초기 부적응 도식은 환경과 관련된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신념과 감정들이다. 둘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기 영속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변화에 대단히 저항적이다. 셋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심각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낸다. 넷째, 초기 부적응 도식은 특정 도식과 관련된 외부 사건에 의해 활성화된다.

다섯째, 초기 부적응 도식이 활성화 되면 강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만든다. 여섯째, 초기 부적응 도식은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등과의 역기능적 경험과 타고난 기질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긴다(Young 등, 2003).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은 다음과 같은 15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표1 참조)

표1. 초기 부적응 도식의 하위 요인

정서적 박탈 (Emotional Deprivation)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유기 (Abandonment)	자신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중요한 사람이 자신을 버리거나 떠나갈 것이라는 두려움
불신 (Mistrust/Abuse)	타인은 결국 자신을 이용하고 말 것이라는 믿음
사회적 고립 (Social Isolation)	자신은 남들과 다르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다는 믿음
결함 (Defectiveness/Shame)	자신은 중요한 면에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사랑스럽지 않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실패(Failure)	자신은 무능하고, 실패자며,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믿음
의존(Dependence)	타인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
위험 취약성(Vulnerability to harm or illness)	갑작스런 재앙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 것이라는 과장된 두려움과 재앙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비분리 (Enmeshment)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과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것
복종(subjugation)	자신의 선호, 결정, 욕구 등을 과도하게 억제해야 한다는 것
자기-희생 (self-Sacrifice)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부가적인 짐이나 부담을 지면서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것
정서적 억압 (Emotional Inhibition)	충동이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상황에 대한 우려와 충동이나 분노에 대한 정서 통제의 결함

절대 기준	달성하기 어려운 절대적 기준과 완벽에 대한 추구
자기 우월 (Entitlement/Grandiosity)	자신은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구 속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믿음
불충분한 자기-통제 (Insufficient Self-Control)	충분한 자기-통제를 발휘하는데 어려워하고, 자신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심이 없거나 자신의 정서와 충 동의 과도한 표현을 억누른다.

아동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핵심적인 정서욕구(core emotional need)로 인해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심리 도식의 기원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생애초기의 경험들에 따라 초기 부적응 도식이 생겨난다고 본다. Schmidt, Joiner, Young 및 Telch(1995)는 Young 심리도식 질문지의 심리 측정적 속성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각 초기 부적응 도식의 내적 일치도는 .83 ~ .96(결함/수치심)의 범위에 속했으며, 비 임상 표본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0에서 .82의 범위에 속했다. 주요 하위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내적 일치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심리적 고통, 자존감, 우울감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 성격장애 증상 측정치등과 변별 타당도가 양호하였다.

2) 아동기 학대, 부적응도식, 우울 및 불안

최근 들어 인지매개를 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인지매개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지매개가설에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즉 각 개인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S-R), 능동적으로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

고 반응한다(S-O-R)고 본다. 예컨대, 자녀가 대학입학시험에 낙방했을 때(S) 누구나 어느 정도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 자녀나 어머니인 자신이 완전히 실패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O)와 부족하지만 다시 노력하면 다음 해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O)는 그 반응(R)이 상당히 달라진다. 이와 같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실재(objective reality) 보다는 자신이 현상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구축된 주관적-개인적 실재(personal reality)라고 할 수 있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애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부정적 생활 사건들도 우울 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어머니의 우울증,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이혼, 부부갈등을 등의 가족 및 사회 환경이 우울증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경험뿐만 아니라 우울 증상의 발현과 유지에 기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인으로 인지 변인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지변인이 성인기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인지적 접근에서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 Beck(1967)의 우울증 모델에서는 사고의 왜곡된 패턴을 우울증의 유발 및 발달의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고, Abramson, Seligman 과 Teasedale(1978)은 우울증과 관련된 특징적인 귀인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Krantz &Hammen, 1979; Blaney, Behar, & Head(1980)는 그 외의 왜곡된 사고등도 우울증상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조성호(2002)의 도식과 우울 관련 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도식을

탐구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 증상에는 사회적 고립, 위험 취약성, 유기, 내성취약이라는 도식이 전체 변량의 43.7%를 설명하였다. 이는 Young(1990)의 이론에 대한 경험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식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Beck(1979)과 Bowlby(1988)의 이론을 통합한 Young(1994)는 대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기 동안 특정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발달하고, 이 특정 부적응 도식은 후기 경험의 이해를 돕는 틀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우울증의 원인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 인지적 요인이 우울증과 관련되어 주목 받아왔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주의와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인지적 요인이 우울증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이를 통해 우울증이 지속되고 악화된다고 하였다(Musson & Ally, 1987; Pyszcznski & Greenberg, 1987).

Schmidt et al(1995)에 따르면, 대학생 집단과 임상 집단에서 도식 질문지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도식질문지 총 점수와 자기-보고된 우울증상간에 정적인 상관을 발견했다. 또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해서 13개의 개별 도식 질문지 하위 문항과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발견한 결과 의존과 결함의 부적응 도식은 우울한 사람이 사실상 무가치하고, 일상생활조차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하는 신념을 반영한다. 또한 결함도식은 우울한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고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신념을 반영한다.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과 우울간 관계는 Beck의 인지 삼재와 일치하고, 특히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 몰입한다.

Beck & Clark(1998) 연구를 보면, 불안 장애 환자는 상대적이고 잠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위협을 주제로 한 사고 내용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있다. 또한 일반 정신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Clark, Beck, & Brown, 1989)에서는 위협과 위협에 대한 인지내용은 강력하게 불안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상과 도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외상경험을 한 청소년들 중 PTSD를 겪는 청소년은 겪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으며, 외상사건의 탓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상경험이 PTSD와 같은 임상적 증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사고와 신념의 경향성을 갖게 하는 것과는 높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사회인지적 모델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외상 경험이 왜곡되고 역기능적인 사고패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PTSD증상의 발현과 유지와 관련되는지 알아보고자 한 연구의 결과는 외상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력하며, 주위의 소위 “정상적이고 평범한”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내면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더욱 대인관계에서 소외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낸다(안현희, 2005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동기 학대는 도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생성된 도식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장애의 발현과 유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 그리고 초기 부적응 도식을 함께 탐색한 연구가 많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서울 지역 S여대와 K대학, 수원 지역의 K대학생에게 총40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95부가 수거 되었으며, 이 중 277개의 설문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1) Beck 우울 질문지(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

우울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Beck과 Ward와 Mendalson과 Mock 및 Erbaugh(1961)가 개발한 척도를 이영호(1993)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한다. 임상적인 우울 증상을 토대로 만든 총 21개 문항으로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인 면과 생리적 증후군을 포함하고 있다. 답지는 하나의 우울 증상에 대한 심각한 정도순 으로 기술한 4개의 문항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점수는 0에서 63점 까지 가능하다. Beck등 (1961)의 신뢰도 및 양분 상관계수는 .65에서 .67까지이다. 이영호(1993)의 논문 집단에서 대학생집단은 내적 신뢰도 .98, 반분신뢰도 계수 .91이었고, 일반인 집단의 경우 내적 합치도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75이다.

2) Beck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Emerry 와 Greenberg(1985)에 의해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평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0에서 63점까지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1992)이 번안한 한국판 Beck불안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권석만(1992)의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99이다.

3)초기 부적응 도식 단축척도 (YSQ-Short Form)

초기 부적응 도식척도로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분석(조성호, 2001a)에서 구해진 16개의 요인(부적응 도식)이 있다. 16개의 도식들은 실패/무능, 정서지지 결여, 절대기준/완벽, 비분리, 예속/굴종, 불신, 내성 취약, 배려/희생, 결합, 고립/ 단절, 의존, 상실우려, 파국, 충동/분노, 자기우월, 및 몰락 등이다. 이 도식들은 각기 4~24개의 문항들로 구성되며, 응답자들은 각 문항 진술문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따라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전적으로 그렇다.) 상에서 응답하게 된다. 점수가 더 높을수록 측정되는 도식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지의 문항수가 205문항인 관계로, Young(1990)이 초기부적응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식 질문지 단축형을 이미엘(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한다. 15개의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식별로 5문항씩, 총 7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6점 척도로서 응답자들은 각 문항 진술문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선택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되는 도식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각 도식을 측

정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는 평균 .969이다.

4) 아동기 학대와 방임

아동기 학대와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nstein과 Fink(1998)의 아동기 외상 질문지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의 다섯가지 하위 척도가 각각 5문항씩 구성되어 있고, 점수에 합산되지 않는 타당도 척도 3문항으로 총 28문항인 리커르트 척도이다.

신체적 학대 문항은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등의 내용이며, 정서적 학대 문항은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 멍청이, 똥뽕이, 바보)” 등의 내용이고, 성적 학대 문항은 “강제로 신체(손, 엉덩이, 가슴, 성기 등)를 접촉한 적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방임은 “가족 안에서 사랑 받았다고 느꼈다.” 등의 문항으로 모두 역 채점 하게 되어있고, 신체적 방임은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7번 문항인 “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만 역 채점 문항이다.

만 18세 이전에 부모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나 방임이 전혀 없으면 0점, 자주 있을수록 3점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75점에 분포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나 방임 경험이 많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876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성적 학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빈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3.자료 분석

기술통계 분석은 SPSS16.0을 사용한다. SPSS를 이용하여 신뢰도, 상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모형 검증은 AMOS 7.0을 이용 구조방정식 모형 이용하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알아본다. 연구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간의 요인이 15개로 나뉘지 않고, 도식 요인상관이 크게 나왔다. 때문에 도식의 유형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중다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중다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은 여러 독립변수가 동시에 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쓰인다. 이 경우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이나 영향력의 허위적 관계를 살펴 볼 수 있어서 단순 회귀분석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 낸다고 할 수 있다. 단순 회귀분석 결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도식은 정서적 박탈, 유기, 위험 취약성, 절대적 기준이 있었다. 초기 부적응 도식 중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중다회귀 분석을 통하여 선별할 수 있었다. 유기, 위험취약, 비분리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회귀 분석결과는 연구결과에 언급하겠다.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fit index)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을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ices), 증분 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ices), 간결 적합도지수(parsimony fit indices)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 적합도 지수와, 증분 적합도 지수, 그리고 간결 적합도 지수를 모두 보고한다. 그 중 CMIN/DF, GFI, TLI, CFI, RAMSEA, PCFI를 사용한다.

CMIN/DF는 chi-square값을 자유도로 나눈 비율인데,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으며 3.0이하(보다 엄격하게는 2.0 이하)이면 수용할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FI는 모델이 자료의 변량/ 공변량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 적어도 .90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95이상이면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TLI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1보다 큰 값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90이상이면 적합도를 수용할 수 있다. CFI는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지수이다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1보다 큰 값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90이상이면 적합도를 수용할 수 있다. RMSEA 는 chi-square 통계량의 한계점인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측정변수들의 수가 많으면 모형의 적합도가 쉽게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 chi-square 값을 자유도와 표본의 크기로 조정 한 값이다.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대체로 .08(혹은 .10)보다 낮으면 적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수한 적합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PCFI는 간결 적합도 지수로 여러 개의 경쟁 모형이 있는 경우 적합도와 간결성을 고려하여 더 나은 모형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수이다. 간결 적합도 지수는 절대 적합도 지수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난다. PCFI는 CFI에 PR(parsimony ratio; 간결 비율)을 곱한 값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단독적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두 개 이상 경쟁 모형들의 PCFI를 비교하여 더 높은 PCFI를 갖는 모형이 더 나은 모형이 된다.

IV. 결 과

1. 주요변인간의 상관계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 그리고 초기 부적응 도식간의 상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요변인간의 상관계수는 다음 페이지 참조)

표2. 주요변인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278**	1																			
3	.602**	.153**	1																		
4	.421**	.435**	.384**	1																	
5	.755**	.730**	.666**	.730**	1																
6	.477**	.393**	.216**	.369**	.517**	1															
7	.405**	.185**	.192**	.185**	.341**	.415**	1														
8	.348**	.139**	.182**	.178**	.298**	.339**	.551**	1													
9	.278**	.081**	.221**	.100	.237**	.251**	.414**	.453**	1												
10	.228**	.070**	.139**	.096	.184**	.267**	.397**	.392**	.420**	1											
11	.484**	.222**	.264**	.241**	.428**	.583**	.764**	.742**	.672**	.632**	1										
12	.425**	.291**	.269**	.281**	.458**	.475**	.557**	.531**	.429**	.382**	.647**	1									
13	.328**	.254**	.198**	.227**	.372**	.408**	.482**	.534**	.427**	.457**	.636**	.642**	1								
14	.204**	.192**	.295**	.207**	.331**	.291**	.359**	.328**	.260**	.243**	.362**	.395**	.489**	1							
15	.413**	.314**	.288**	.294**	.479**	.496**	.585**	.579**	.475**	.451**	.701**	.917**	.855**	.619**	1						
16	.389**	.190**	.259**	.247**	.374**	.384**	.571**	.581**	.466**	.479**	.640**	.668**	.692**	.429**	.748**	1					
17	.325**	.185**	.290**	.323**	.377**	.221**	.367**	.414**	.297**	.256**	.409**	.424**	.469**	.457**	.510**	.530**	1				
18	.315**	.036	.271**	.252**	.281**	.188**	.318**	.431**	.308**	.315**	.386**	.378**	.446**	.358**	.440**	.546**	.530**	1			
19	.267**	.206**	.200**	.251**	.326**	.278**	.472**	.477**	.341**	.284**	.485**	.534**	.548**	.358**	.600**	.761**	.586**	.508**	1		
20	.396**	.194**	.303**	.315**	.412**	.343**	.545**	.589**	.443**	.424**	.604**	.632**	.674**	.482**	.721**	.905**	.763**	.743**	.875**	1	
평균	2.08	3.04	1.12	1.84	8.20	8.53	10.83	9.44	8.68	13.10	151.03	4.41	3.70	1.45	9.35	3.91	2.24	2.15	2.16	10.46	
표편	2.76	3.97	2.07	2.10	8.31	4.23	5.36	4.54	4.43	5.57	50.20	4.27	2.93	1.66	7.51	3.70	2.09	1.99	2.45	8.57	

1.정서적 학대 2.정서적 방임 3.신체적 학대 4.신체적 방임 5. 학대 총점 6.정서적 박탈 7.유기 8.위험 취약성 9.비분리
10.절대 기준 11.도식 총점 12.부정적 태도 13.수행의 어려움 14.신체적 증상 15.우울 총점 16.주관적 불안 17.신경 생리학적 불안
18.자율신경계 불안 19.공황적 불안 20.불안 총점 **P<.001 *P<.005

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우울 및 불안 회귀분석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기 위하여 중다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값을 갖는 요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다.

표3. 초기 부적응 도식-우울 회귀 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우울	초기 부적응 도식	.739	.545	.519	5.21

초기 부적응 도식 하위 요인 15개와 우울의 회귀 분석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은 우울을 51.9%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부적응 도식 중 우울과 관련이 있는 유의미한 변인은 정서박탈, 유기, 위험취약, 절대 기준으로 나타났다.

표4. 초기 부적응 도식-우울 요인별 회귀결과

도식	B	Std. Error	Beta	t	sig
정서박탈	.321	.106	.181	3.044	.003
유기	.305	.089	.218	3.409	.001
위험취약	.360	.102	.218	3.538	.000
절대기준	.167	.074	.124	2.240	.026

회귀분석 결과 15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의 요인 중 4개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박탈의 경우 .181의 영향력을 갖으며, 유기와 위험 취약의 경우 각각 .218의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절대 기준은 .124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4개의 변인 중 우울에만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는 정서박탈과, 절대 기준이 있다. 유기와 위험 취약은 우울 및 불안 두 변인 모두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초기 부적응 도식-불안 회귀 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불안	초기 부적응 도식	.695	.483	.453	6.34

초기 부적응 도식 하위 요인 15개와 불안의 회귀 분석 결과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불안을 45.3%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부적응 도식 중 불안과 관련이 있는 유의미한 변인은 유기, 위협취약, 비분리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6. 초기 부적응 도식-불안 요인별 회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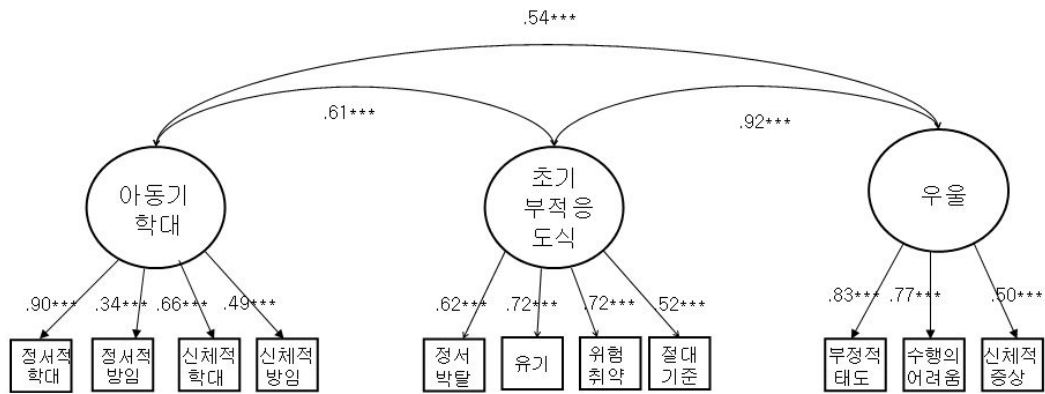
도식	B	Std. Error	Beta	t	sig
유기	.481	.109	.301	4.416	.000
위협취약	.688	.124	.364	5.550	.000
비분리	.342	.120	.177	2.859	.005

중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 위협취약이 .364의 영향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유기가 .301의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비분리가 .177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 세 요인 중 유기와 위협 취약은 우울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 된 이 두 개의 요인의 영향력이 우울 및 불안 모두에서 가장 컸다. 따라서 우울 및 불안에 대한 각각의 모형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의 수가 달라진다. 우울 측정 모형의 경우 정서박탈, 유기, 위협 취약, 절대기준이 매개 변인이다. 그리고 불안 측정 모형의 경우 유기, 위협 취약, 비분리가 매개변인이 된다.

3. 측정모델 검증

1) 초기부적응 도식을 매개로 한 측정모델 요인 부하량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을 검증하기 전에 각각의 측정 변인이 얼마나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측정 모델을 검증하였다. 3개의 잠재변인(아동기 학대, 초기 부적응 도식, 우울)을 구성하는 측정 변인의 수는 총 11개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본 결과 각 잠재 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신뢰도 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측정 모델의 적합도는 아래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이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표7에, 측정 모델의 요인 값은 표8에 제시하였다.



***p<.001

그림7. 초기 부적응 도식 매개로 한 우울 측정 모델 검증

표7. 우울 측정모델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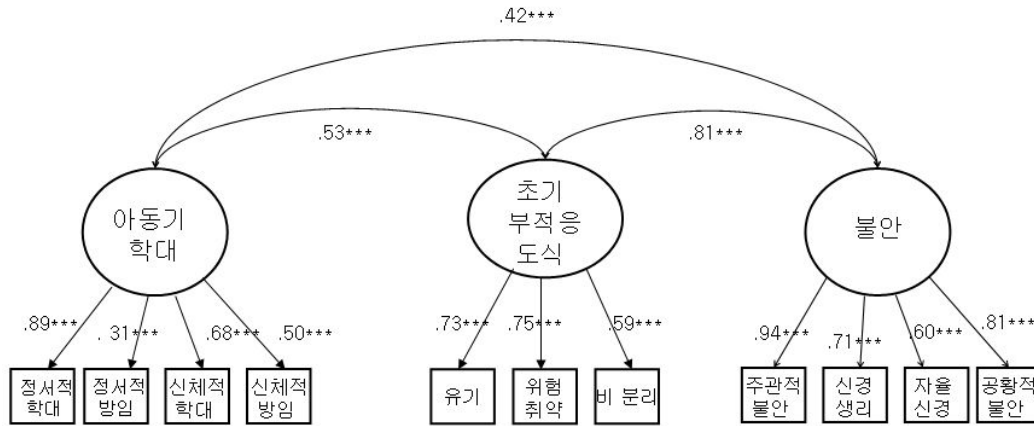
CMIN/DF	GFI	TLI	CFI	RAMSEA	PCFI
2.825	.941	.902	.934	.081	.629

표8. 우울 측정 모델 요인 부하량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계수
아동기 학대				
정서적 학대	2.387	.328	7.190	.621
정서적 방임	1.288	.236	5.446	.723
신체적 학대	1.325	.184	7.284	.722
신체적 방임	1			.521
초기부적응				
도식				
정서적 박탈	.904	.125	7.226	.897
유기	1.334	.167	7.982	.335
위험 취약	1.128	.143	7.882	.663
절대 기준	1			.493
우울				
부정적 태도	4.293	.558	7.699	.826
수행의 어려움	2.748	.329	8.352	.773
신체적 증상	1			.496

아동기 학대와 불안과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를 보기 위한 측정모델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불안의 경우(아동기 학대, 초기 부적응 도식, 불안)을 구성하는 측정변인의 수는 총 11개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해본 결과 각 잠재 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신뢰도 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측정 모델의 적합도는

아래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이다. 불안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표9에, 불안 측정 모델의 요인 값은 표10.에 제시하였다.



***p<.001

그림8. 초기 부적응 도식 매개로 한 불안 측정 모델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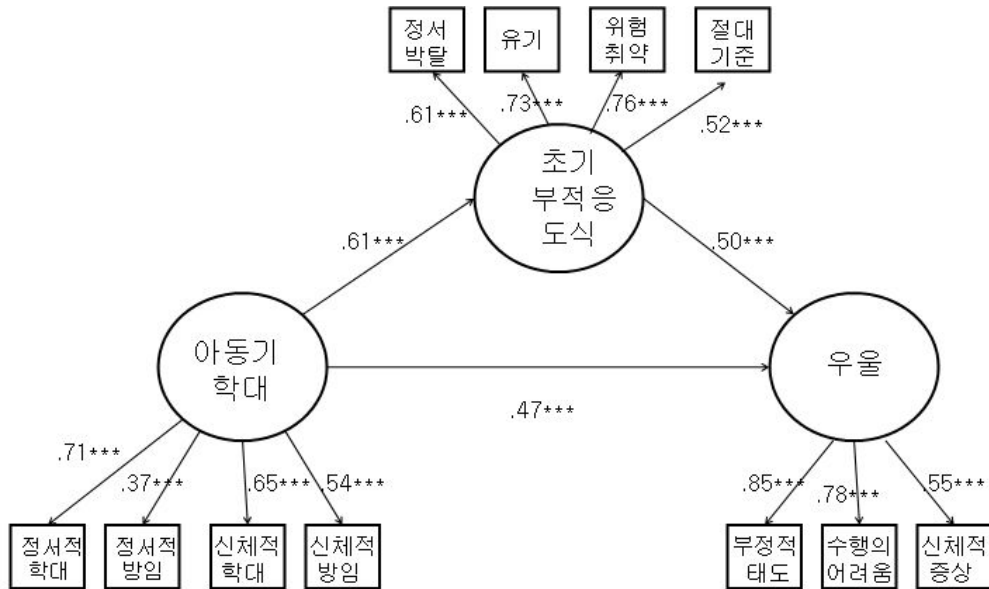
표9. 불안 측정모델 적합도

CMIN/DF	GFI	TLI	CFI	RAMSEA	PCFI
1.769	.957	.964	.975	.053	.674

표10. 불안 측정 모델 요인 부하량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계수
아동기 학대				
정서적 학대	2.347	.328	7.161	.887
정서적 방임	1.162	.231	5.034	.306
신체적 학대	1.342	.186	7.222	.675
신체적 방임	1			.496
초기부적응				
도식				
유기	1.509	.173	8.710	.731
위험 취약	1.317	.149	8.849	.753
비분리	1			.586
불안				
주관적 불안	2.937	.272	10.785	.942
부정적 태도	1.244	.128	9.731	.708
수행의 어려움	1			.596
신체적 증상	1.669	.161	10.343	.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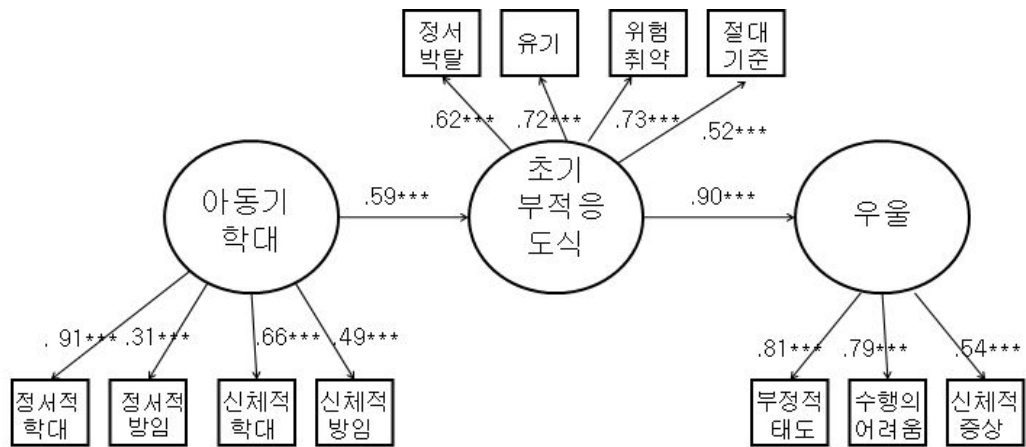
4. 아동기 학대와 우울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



***p<.001

그림9. 연구 모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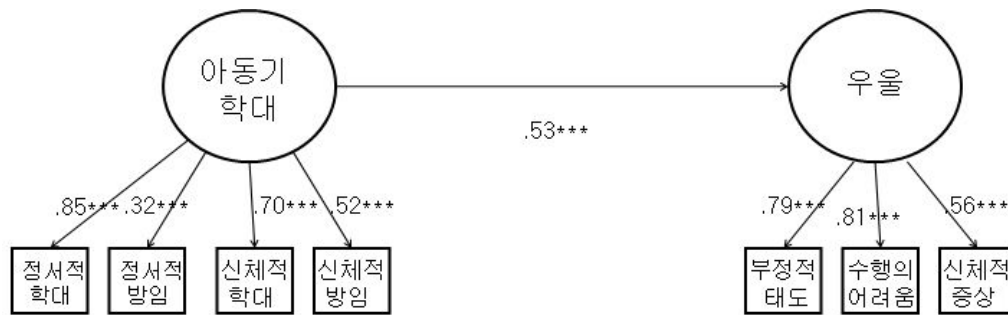
연구 모형 1은 아동기학대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박탈, 유기, 위험 취약, 절대 기준의 초기 부적응 도식이 부분 매개하는 것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고, 아동기 학대와 초기 부적응 도식은 $\beta=.77$, $P<.001$ 로 아동기 학대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박탈, 유기, 위험 취약, 절대 기준의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초기 부적응 도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점수가 높았다. 매개 효과를 검증 할 수 있는 Sobel test결과 4.541($p=0.00$)로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p<.001

그림10. 경쟁 모형1.1

경쟁모형1.1는 연구모형과 비교해서 아동기 학대가 초기 부적응 도식을 거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를 나타낸다. 아동기 학대는 초기 부적응 도식에 $\beta=.70$, $P<.001$ 로 영향을 미치며, 초기 부적응 도식이 높을수록 $\beta=.90$, $P<.001$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001

그림11. 경쟁 모형1.2

경쟁모형1.2는 아동기 학대가 초기 부적응 도식을 거치지 않고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순효과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인지가 매개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이 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아동기 학대와 우울을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개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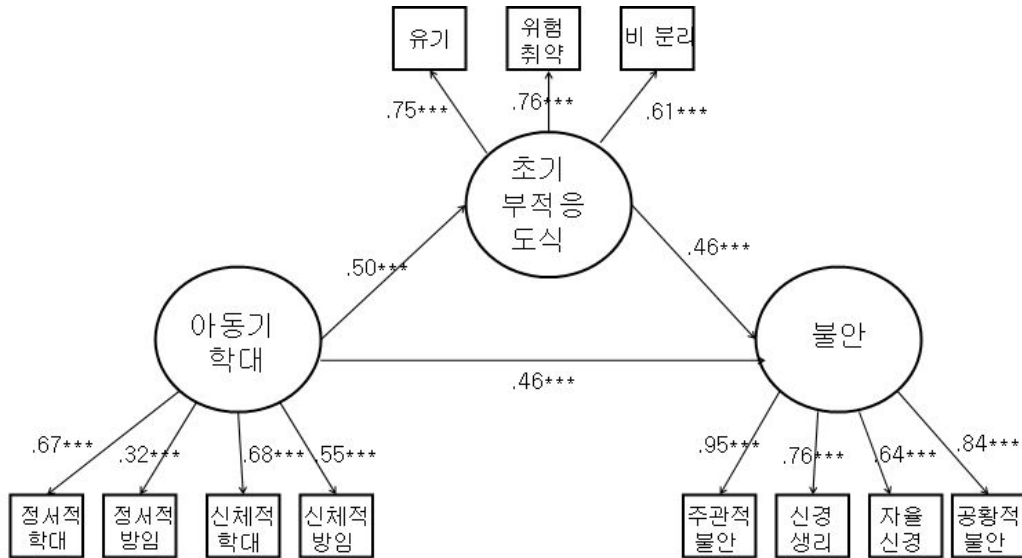
표11. 우울을 설명하기 위한 3개의 모형 적합도(N=277)

	CMIN/DF	GFI	TLI	CFI	RAMSEA	PCFI
연구모형1	4.379	.901	.819	.868	.111	.632
경쟁모형1.1	2.897	.933	.898	.926	.083	.674
경쟁모형1.2	3.621	.958	.899	.942	.097	.538

우선 동지 관계인 연구 모형1과 경쟁모형1.1을 비교하면, 적합도의 모든 수치가 부분 매개인 연구모형1 보다 완전매개인 경쟁모형1.1이 더욱 설명력이 좋았다. CMIN/DF의 경우 3이하일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경쟁모형1.1의 경우 세 모형 중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모형이다. 경쟁모형

1.1은 GFI, CFI가 모형 수용 조건인 .90을 넘었으며, RAMSEA는 .1 이하로 나타나 적합도의 수용 조건을 만족 시켰다. 모형 간 비교를 할 수 있는 PCFI 경우, 연구모형1과 비교하여 경쟁 모형1.1 이 더 높은 것으로 볼 때 완전매개 모형이 부분 매개 모형보다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개하지 않는 경쟁 모형1.2의 경우 절대 적합도지수가 적합도 수용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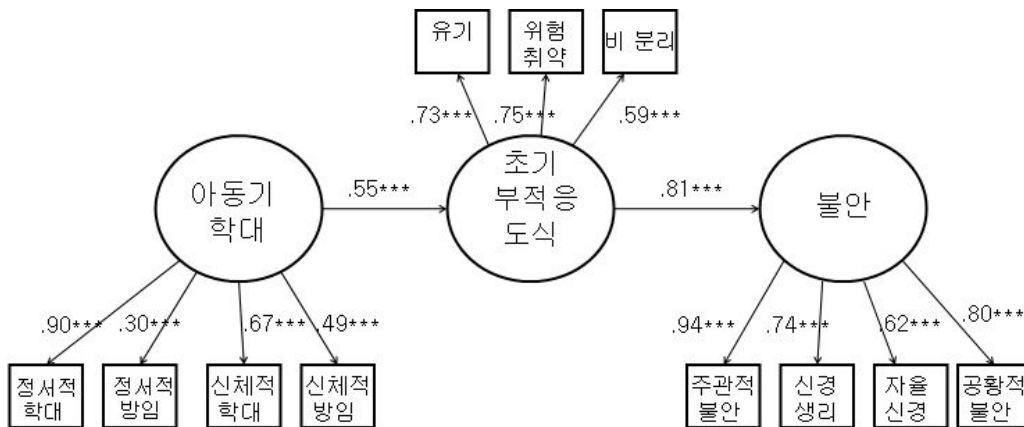
5. 아동기 학대와 불안과의 관계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 효과



*** $p < .001$

그림 12. 연구 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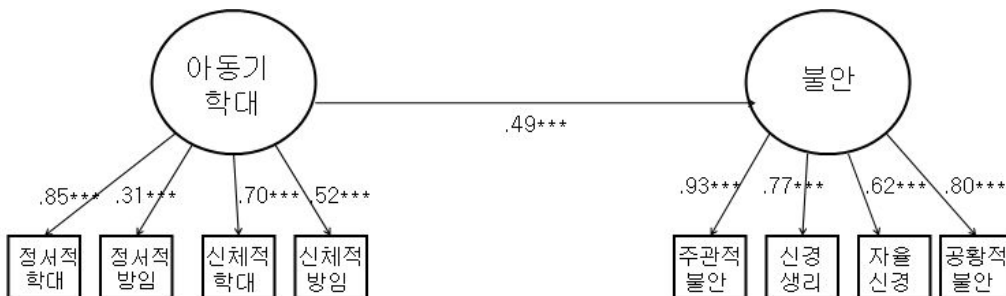
연구 모형 2는 아동기 학대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 부적응 도식이 부분 매개하는 것이다. 아동기 학대는 초기 부적응 도식에 $\beta = .48$, $P < .001$ 로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아동기 학대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 부적응 도식 중 유기, 위험 취약, 비분리 도식이 발달하는 것이다. 초기 부적응 도식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또한 $\beta = .48$, $P < .001$ 로 초기 부적응 도식 중에서 유기, 위험 취약, 비분리 도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기 학대가 직접적으로 불안에 주는 영향력은 $\beta = .44$, $P < .001$ 로 이 경로 또한 유의미했다. Sobel test 결과 4.417($p = 0.00$)로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P<.001

그림13. 경쟁모형2.1

경쟁모형 2.1은 아동기 학대가 초기 부적응 도식을 거쳐 불안에 영향을 주는 완전 매개 모형이다. 이모형은 완전매개 모형으로 아동기 학대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beta=.56$, $P<.001$ 이었으며, 초기 부적응 도식에서 불안이 $\beta=.81$, $P<.001$ 로 아동기 학대는 초기 부적응 도식에, 초기 부적응 도식은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P<.001

그림14. 경쟁모형2.2

경쟁모형 2.2는 아동기 학대가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

는 단순효과모형이다. 아동기 학대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50$, $P<.001$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불안을 설명하는 세 모형의 적합도를 보며, 어떠한 모형이 더욱 우수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적합도 지수는 아래 제시된 것과 같다.

표12. 불안을 설명하기 위한 3개의 모형 적합도 (N=277)

	CMIN/DF	GFI	TLI	CFI	RAMSEA	PCFI
연구모형2	3.132	.926	.899	.929	.088	.658
경쟁모형2.1	1.860	.952	.959	.971	.056	.689
경쟁모형2.2	2.384	.964	.952	.971	.071	.589

불안의 경우, 모든 모형의 적합도가 모형 수용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경쟁 모형 비교에 이용할 수 있는 PCFI를 보면, 아동기 외상이 초기 부적응 도식을 거쳐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 모형인 경쟁모형 2.1이 가장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논의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연구나, 학대와 도식에 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많이 있어 왔지만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을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개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이 도식에 의해 매개 되는 인지-매개 이론을 전제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아동기 학대가 초기 부적응 도식에 끼치는 영향과 더불어, 초기 부적응 도식의 어떠한 내용이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을 매개하는지 내용-특수성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이것은 곧 인지 내용에 따라서 우울 및 불안을 구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연구 결과 학대받은 경험이 많이 있을수록 우울 및 불안이 높았지만, 이것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보다는 도식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더 설명력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은 아동기 학대와 우울, 아동기 학대와 불안을 매개하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보는 모형 모두에서 일관되게 지지된다. 또한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을 초기 부적응 도식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에서 입증되는바 이다. 우울과 불안을 인지 내용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본 연구는 우울과 불안의 삼요인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박탈, 유기, 위협취약, 절대 기준이 아동기 학대와 우울을 매개하는 인지 내용이었다. 또한 유기, 위협 취약, 비분리는 아동기 학대와 불안을 매개하는 인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다. 즉, 유기와 위협취약이 아동기

학대와 우울 및 불안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우울에 특수하게 영향력이 있는 도식으로 정서 박탈, 절대 기준이 있었고, 불안에 특수하게 영향력이 있는 도식으로는 비분리가 있었다.

Beck은 도식이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아동기 동안에 발생하는 주요 상호 작용으로 인해 생긴다고 가정하였다(Beck, 1967, 1987; Kovacs & Beck, 1978:장 정보, 2007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만약 초기 상호작용이 부정적이었다면, 도식이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이 사건 위주로 발달 될 것이며, 발생하는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도록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토대로 Beck(Beck, 1967, 1987; Kovacs & Beck, 1978)은 우울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Beck은 아동기 학대가 자신과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도식을 초래하는데, 이 도식이 활성화 되었을 때,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하였다(Kayson et al., 2005). 이러한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아동기 외상 점수가 높을 수록 초기 부적응 도식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발달할수록 우울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아동기의 다양한 학대 경험이 성인기 우울증을 초래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지 양식의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아동기의 신체적인 학대는 성인기의 부정적인 귀인양식과 대처 양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Kuyken & Brewin, 1999). 그리고 아동기의 심리적 학대는 성인기의 정서 표현 억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지 양식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Krause, Mendelson, & Lynch, 2003). Rose와 Abramson (1992)은 아동기 학대 경험을 포함하여 아동기에 부정적인 발달적 사건과 같은 특정 사건이 부정적 인지 양식을 유발 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인지 양식이

특질처럼 정교화 된다고 하였다.

James C. Ballenger(2004)등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초기 외상은 PTSD와 주요 우울을 포함한 정신과적 병의 발달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외상을 경험한 것에 대한 사회과학적 조사에 의하면 외상은 뇌의 형태와 기능을 영구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고, 이는 성인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낸다. 동물과 아동의 초기 외상은 뇌의 화학적 구조적 변화를 야기 시킨다. 덧붙여 성인기에도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지속된다. 이러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기 학대는 정신과적 영역에서 병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부적응 도식과 우울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Schmidt 외(1995)의 연구 결과에서 도식 질문지 총 점수와 우울증상간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으며,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해서 13개의 개별 도식 질문지 하위 문항과 우울증상간 관계를 발견한 결과 의존과 결함/수치심의 부적응 도식이 Beck의 우울척도점수에서 변인의 33%를 설명하였다.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Bowlby, Blatt(1974)은 임상적 우울의 주요 특징으로 의존성과 죄책감을 강조해 온 정신 분석적 전통 (Freud, 1971; Fenichel, 1945; Bibringt, 1953; 조재임, 1996에서 재인용)을 받아들여, 임상에서 심리적 우울 경험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울의 두 차원을 발견하였으며 각각 의존적 우울(dependent depression)과 자기-비판적 우울(self-critical depression)로 명명하였다.

의존적 우울은 외로움, 나약함, 무력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보호받고 싶은 욕구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며, 사랑받지 못함, 유기되는 등의 정서를 갖는다. 반면 자기-비판적 우울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주된 특징이며 열등감, 실패

의식, 죄책감 등을 갖는다. 특히 자기-비판적 우울을 가진 사람은 과도한 성취 욕구와 완벽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Blatt & Shichman, 1983). 그리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여 타인의 사랑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사랑이나 인정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Blatt & Zuroff, 1992). 끊임없이 자기비판을 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처벌적이며 개인적인 성취와 타인의 인정에 집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적절히 충족 되지 않아 발달하는 정서박탈의 부적응 도식과,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떠날 것 같다는 사고 내용이 특징인 유기의 도식이 아동기 학대와 우울 매개하여 이러한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 유기란, 중요한 대상의 상실로 인한 지지의 결핍임을 감안하면 이는 주요한 내적 대상의 상실이 우울증상의 주요 특징임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준다(김지연, 2007). 또한 절대기준의 도식은 자기-비판적 우울을 가진 사람의 완벽주의와 관련되어 있어 이 또한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불안은 위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위협, 불예측성, 불확실성과 관련된 사고 내용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일어 날 것이라고 믿는 도식인 위협 취약성이 아동기 학대와 불안을 매개하여 이러한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분리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 Vaughn, Gove, Egeland(1980)는 분리시기별로 애착에 미치는 정도를 연구했는데, 1세 이후에 분리된 아동이 1세 이전에 분리된 아동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아동에게 애착을 느끼는 대상과의 분리는 정서적 방임과 관련이 있고 이는 유기와 비분리 도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언하면 유기, 비분리 도식과 불안은 이 두 도식이 생의 초기 중요한 대상과의 애착관계에서 생겨 날 수 있다는 것

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불안은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할 때 생길 수 있다(김영교, 1995).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방임은 유기의 도식을 발달시키고, 이 도식이 불안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설문 조사의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아동기 학대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와 관련하여, 설문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것을 회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아동기 학대의 빈도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의 표본이 무선 적이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초기 부적응 도식의 내용에 대해 안다는 것이 상당한 인지적 정서적 노력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실제 도식의 내용이 설문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이러한 단점은 양적연구와 함께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구조적 면담과 실제 상담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규(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박은정(2007). *청소년의 사회적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권석만(1996). *우울과 불안의 관계: 인지내용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공통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 권석만(1996). *자기인지 구조와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서 우울 집단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강지영(2002). *피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족 내외의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의진(2004). *한 번의 심각한 외상경험을 한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정신병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안귀여루(2001). *성장기에 부모에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 안현희 (2005a). *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연구
- 조성호(2002). *초기 부적응 도식과 심리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조성호(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Jeffrey E. Yuong, Janet S. Klosko, Marjorie E. Weishaar 공저. 권석만, 김진숙, 서수균, 유성진, 이지영 공역. 심리도식치료
- Kendall-Tackett(1993).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Behavior, Attributional Styles, and Behavioral Symptomatology in Maltreat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 Giant C.L.1; Vartanian L.R.2(2003). *Experiences with Parental Aggression During Childhood and Self-Concept in Adulthood: The Importance of Subjective Percep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ume 18*
- Appel & Holden, 1998 A.E Appel and G.W. Holden, *The co-occurrence of spouse and physical child abuse: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 Dumont & Provost(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8, No. 3, 1999*
- Beck(1976). *Cognitive Content-Specificity for Anxiety and Depression: A Meta-Analy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 Bernstein, Fink(1998).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in a Community Sampl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Normative Dat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 Allen, Tarnowski(1989). *Depressive characteristics of physically*

- abus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 Spaccaerlli, Kim(1995).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 Kuyken, Brewin(1995). *Autobiographical memory functioning in dpression and reports of early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 Gelles(1987).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Nature Medicine*
- Kovacs ,Beck(1995). *Attention And Emotion: A Clinical Perspective.* Psychology Press
- Kuyken, Brewin(1999). *The Relation of Early Abuse to Cognition and Coping in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 Rose, Abramson(1992). *Childhood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specific inferences: A test of Rose and Abramson's (1992) extension of the hopelessness theory.* Cognition and Emotion
- Pyszcznski, Greenberg(1987). *Self-regulatory perseveration and the pressive self-focusing style: a self-awareness theory of reactive depression.* Psychol Bull
- David A. Clark, Aaron T. Beck, Brad A. Alford(1999). *Scientific Foundations of Cognitive Theory and Therapy of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 Kaplan, S. J. MD., Pelcovitz. D. Ph. D & Labruna, V. Ph.D (1999). *Child and Adolescent Abuse and Neglect Research: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Part 1: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Back, J. G., Coffey, S. A., Gudmundottir, B., Miller, L. M., & Colder, C. R.(2004).*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PTCI): A replication with motor vehicle accident survivors.* Psychological Assessment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 Feeny, N. C. Foa, E. B. Treadwell, K. R. H., & March, J. (200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youth: A critical review of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treatment outcome literatur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 Kaplan, Pelcovitz & Labruna(1999). *Speritus, 2003. Consequences of Child Exposure to War and Terrorism.*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 on the Childhood Trauma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Choi. Mi J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depression, anxiety on the early Maladaptive Schema. The subjects were 400 students recruited from University in Metropolitan Seoul and Gyeonggi-do. 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Anxiety Inventory, YSQ-Short Form,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CTQ) were administered to the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hood abus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and mediating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depression, anxiety on the early Maladaptive Schema.

Second, Emotional Deprivation, absoluteness was related only with depression. and Enmeshment was related only with anxiety.

Third, Abandonment and Vulnerability to harm or illn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Finally, based on the finding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abuse, Depression, Anxiety, Mediating,
Early Maladaptive Schema

부 록

1. 외상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CTQ)
2. 초기도식질문지(YSQ-Short Form)
3. 우울검사(BDI)
4. 불안검사(BAI)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그 문항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의 정도를 문항 오른쪽에 제시된 숫자에 표시해주십시오.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는 것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 결과는 모두 통계 처리되어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설문문항 이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 8조에 의거, **절대 비밀보장**이 됩니다.

응답 소요시간은 **약 20분**이며, 본 조사의 질문들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유사한 문항이 나오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이정운

연구자: 최미정

소속: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교신e-mail: suede8106@hanmail.net



다음 네 개의 문항을 읽어 보시고, 그 중 요즘(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항을 선택하여 그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① 나는 슬프지 않다.
	① 나는 슬프다.
	② 나는 항상 슬프고 불행해서 기운을 낼 수 없다.
	③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①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①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②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③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3	① 나는 실패자라 느끼지 않는다.
	① 나는 내가 보통 사람들 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②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이인 것 같다.
	③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①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①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②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③ 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①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① 나는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②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③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	① 나는 내가 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① 나는 내가 별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② 나는 내가 앞으로 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③ 나는 지금 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①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①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② 나는 내 자신이 싫다.
	③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8	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①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내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②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 자신을 질책한다.
	③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 내 자신을 질책한다.

9	㉠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 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
	㉢ 나는 자살하고 싶다.
	㉣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 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
	㉡ 나는 요즘 전보다 자주 운다.
	㉢ 나는 요즘 항상 운다.
	㉣ 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11	㉠ 나는 전보다 더 자주 화를 내지는 않는다.
	㉡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다.
	㉢ 나는 요즘 항상 짜증스럽다.
	㉣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인데도 이젠 짜증조차나지 않는다.
12	㉠ 나는 전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
13	㉠ 나는 전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
	㉢ 나는 전보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나는 더 이상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14	㉠ 나는 전보다 내 모습(외모)이 추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 나는 내가 나이가 들고 매력이 없게 보일까봐 걱정한다.
	㉢ 이젠 남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 만큼 내 모습이 변했다.
	㉣ 나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한다.
15	㉠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많이 힘이 든다.
	㉢ 어떤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
	㉣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 나는 전처럼 잘 잔다.
	㉡ 나는 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
	㉢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 나는 전보다 몇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 나는 전보다 더 피곤을 느끼지는 않는다.
	㉡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을 느낀다.
	㉢ 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피곤을 느낀다.
	㉣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	내 식욕은 전처럼 좋지 않다.
	㉢	내 식욕은 요즘 매우 좋지 않다.
	㉣	요즘은 전혀 식욕이 없다.
19	㉠	나는 요즘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조금 줄었다.
	㉢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	나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
20	㉠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신경 쓰지는 않는다.
	㉡	나는 두통, 소화불량, 변비 등으로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
	㉢	나는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여 다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대해 걱정이 심하다.
21	㉠	나는 요즘 성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다음 문항들을 읽어보고 **요즈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느낌과 생각을 나타 내주는 정도의 해당 위치에 ○표를 하십시오.

문항	전혀 느끼지 않았다	조금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1. 가끔씩 몸이 저리고 쓰시고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①	②	③
2.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①	①	②	③
3.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①	①	②	③
4. 편안하게 쉴 수가 없다.	①	①	②	③
5.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6. 어지러움(현기증)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7. 가끔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뛴다.	①	①	②	③
8. 침착하지 못하다.	①	①	②	③
9. 자주 겁을 먹고 무서움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10. 신경이 과민 되어 있다.	①	①	②	③
11. 가끔씩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다.	①	①	②	③
12. 자주 손이 떨린다.	①	①	②	③
13. 안절부절 못해 한다.	①	①	②	③
14.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15. 가끔씩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다.	①	①	②	③
16.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17. 불안한 상태에 있다.	①	①	②	③
18. 자주 소화가 잘 안되고 배속이 불편하다.	①	①	②	③
19. 가끔씩 기절할 것 같다.	①	①	②	③
20.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한다.	①	①	②	③
21. 땀을 많이 흘린다. (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①	②	③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장을 읽고,

각 문항의 내용이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에 따라 ○표를 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꽤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1	나를 보살펴 주거나, 고민을 나누거나, 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이제껏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진정으로 내 말을 듣고, 심정을 이해해주거나 또는 내 속마음이나 감정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때, 내게 올바른 충고나 방향을 제시해줄 만한 든든한 사람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가까운 사람들이 내 걸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내게는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잃게 될까봐 마음을 졸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가까운 사람들이 내 걸을 떠나거나 나를 버릴 것만 같은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내가 관심을 쏟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져간다는 느낌이 들면 절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때로는 사람들이 내 걸을 떠날 것 같은 걱정을 떨치지 못해, 아예 내가 그들을 멀리해 버리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사람들이 날 이용할 거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계를 풀 수 없다고 느낀다. 그렇게 안하면, 그들이 나를 의도적으로 해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 건 시간문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다른 사람의 진정한 동기나 속셈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대개 사람들의 숨은 동기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나는 어느 곳에서든 잘 어울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뭔가가 어긋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고독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다른 사람들로 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꽤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전적 으로 그렇 다
20	나는 무리에 끼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내 결점을 알고 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나는 남들에게 사랑받거나, 관심 받거나, 존중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기본적인 결함 때문에 수용받기 힘든 마당에,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일이나 성취 면에서 나는 남들에 비해 능력이 뒤쳐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성취 면에서 보자면 나는 무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일과 성취영역에서 나보다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9	일을 할 때 내가 발휘하는 재능은 남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30	나는 남들에 비해 똑똑하지 못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31	혼자서는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난관을 헤쳐 나갈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32	평상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의존적인 사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33	나는 세상살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4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리는 판단은 믿을 게 못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5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내게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36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37	언제라도 재난(자연적, 범죄적, 경제적 또는 의료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8	나는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할 것 같아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39	가진 돈을 다 날리고 알거지 신세가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0	의사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지만, 내 몸에 심각한 병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1	내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2	부모와 나는 각자의 생활과 문제들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꽤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전적 으로 그렇 다
43	사소한 것까지 같이 나누지 않으면, 부모와 나는 서로에 대해 배신감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44	나 스스로의 삶을 살기보다는 부모가 내 삶을 대신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5	나는 부모와 너무 뒤얽혀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46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문제만 생길 것 같은 기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47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앙갚음이나 거부를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48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수 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49	늘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따라왔기 때문에, 정작 스스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50	사람들에게 내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51	가까운 사람들은 결국 내가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52	나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53	나는 타인을 배려하는 일로 너무 바빠서,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54	나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55	다른 사람들은 내가 타인을 위해서는 많이 일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충분히 일하지 못한다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56	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7	타인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당황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58	나는 따뜻하고 자발적이 되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59	나는 자신을 너무 통제해서 사람들은 나를 냉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0	사람들은 나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61	사람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62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그래서 나는 “충분해” 라는 말을 만족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63	나는 나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4	나는 성취하고 일을 끝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65	나는 쉽게 의무에서 해방될 수 없고, 내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다	꽤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전적 으로 그렇 다
66	내가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할 때, “아니오” 라는 대답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67	나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나 가해지는 어떠한 제한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68	강요를 당하거나 원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면,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69	나는 사람들이 따르는 통상적인 규칙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0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1	지루한 일들은 끝까지 참고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72	목표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73	먼 훗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눈앞의 만족이나 즐거움을 참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74	신나거나 즐겁지 않은 일은 득이 되는 일이라도 참고 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75	나는 나의 해결책을 거의 고수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여러분이 만 18세 이전에 당신과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이에
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잘 읽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면 0점에 자주
있었다고 생각되면 3점에 ○표 하세요.

문항	전혀 없음	드물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1.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멍청이, 똥뽕이)	①	①	②	③
2.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3.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①	①	②	③
4.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5.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6.세게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7.세게 맞아 병원에 간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8.회초리 이외의 물건(허리띠, 몽둥이)으로 맞은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9.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10.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많이 맞은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11.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①	①	②	③
12.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①	②	③
13.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①	①	②	③
14.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①	①	②	③
15.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①	①	②	③
16.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①	①	②	③
17.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	①	①	②	③
18.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①	①	②	③
19.내가 씻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 둔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20.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①	①	②	③